

효험의 약초 위치를 알려준 소나무



지정번호 영주-10-6-1

지정년도 2010

관리기관 영주

수령 710년

수고 12m

흉고둘레 3.4m



경북 영주시 풍기읍

삼가리 617

36° 55' 26.09" N

128° 30' 02.32" E

마을의 뒷산으로 약간 벗어나려는 곳에 있는 보호수 (영주-10-6-1) 소나무는 소백산 남동쪽의 금선계곡을 따라 흐르는 개울가 언덕 위에 자라고 있다. 소나무의 나이는 710년으로 추정된다. 나무높이는 12m, 가슴높이둘레는 340m, 밑동둘레는 357cm 정도이다. 나무갓은 너비가 17m 가량이다. 원줄기는 높이 3.5m 정도에서 3갈래로 갈라진 후 다시 작은 가지로 갈라져 사방으로 고르게 퍼져 있다. 위쪽 가지는 구불구불하게 구부러져 마을길 쪽으로 비스듬하게 펼친 모양을 하고 있다. 전승하는 이야기는 소녀의 효심과 관련이 있다. 옛날에 어머니와 딸이 살고 있었다. 소녀는 어머니가 병에 걸려 아팠을 때 정성껏 어머니를 간호하였고 이름난 의원을 찾아다녔으나 좀처럼 낫지 않았다. 그러자 소녀는 새벽마다 정화수를 떠 놓고 소백산을 바라보며 어머니의 병이 낫기를 빌었다. 어느 날 꿈에 한 노인이 나타나 손에 든 약초를 보여주며 고목의 나무 아래에 있는 이 약초를

찾아 달여 드리라고 했다. 꿈에서 깨어난 소녀는 노인의 말을 굳게 믿고 약초를 찾기 위하여 산길을 올랐다. 소녀는 산길을 한참 오르다 지쳐큰 나무 밑에서 쉬고 있을 때 그 발아래에 그토록 헤매며 찾았던 약초가 있는 것을 보았다. 소녀는 그 자리에 절을 올리고, 고개를 들었는데, 머리 위에는 구름처럼 가지를 넓게 펼친 소나무가 있었다. 소녀는 소나무 밑에 자라는 약초를 캐서 어머니에게 드려 병을 낫게 하였다. 어머니는 딸이 깨어다가 달인 약을 먹고 병이 말끔히 나았다. 얼마 후 소녀는 어머니의 병을 고쳐준 약초를 캐던 자리가 궁금하여 다시 소백산에 올랐다. 밤이 되자 소녀는 길을 잃었다. 산길을 헤매던 소녀는 아침이 되자 문득 가지를 넓게 펼친 소나무가 생각났다. 그 소나무를 찾기로 하고 멀리서 보이는 커다란 나무로 찾아갔다. 그 나무가 바로 이곳 삼가리의 정안골, 당골 소나무였다.

